

조선대 흥정호, 흥명보號 발탁

■U-20 대표팀 최종 엔트리 21명 확정

해외파 4명·전남 윤석영·고교생 최성근도 합류

‘제2의 흥명보’ 흥정호(조선대 2년·사진)가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에 뽑혀 오는 24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200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 출전한다. 또한 전남드래곤즈 소속 윤석영도 흥명보호에 합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공격수 이승렬(FC서울)을 비롯한 K-리그 8명과 조영철(니가타) 등 해외파 4명을 포함한 최종 엔트리 21명을 발표했다.

흥정호는 특히 대표팀 주장까지 맡아 ‘흥명보호’ 팀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순발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흥정호는 상대 공격의 맥을 끊어 속공으로 연결시키는 등 ‘제2의 흥명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186cm의 신장을 이용한 헤딩력도 탁월해 세트플레이 공격에 가담해 골로 연결시키는 공격형 수비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흥정호는 지난해 19세 이하 청소년국가대표에도 뽑혀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우승을 이끌어 낸 주역이기도 하다.

이번 대표팀에는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최성근(연남고)이 선발돼 지난 2003년 대회 때 박주영(당시 청주고)과 2005



년 대회 때 박종진(당시 수원고) 이후 끊었던 U-20 월드컵 고교생 축구대표 맥을 4년만에 이었다.

국내 K-리그 중에는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했던 공격수 이승렬과 서정진(전북), 미드필더 구자철(제주), 골키퍼 이범영

(부산), 김승규, 수비수 임종은(이상 울산), 윤석영(전남), 미드필더 문기환(서울)이 포함됐다.

흥명보 감독은 “최종 명단에 든 21명은 같은 나이에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로 지난 3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됐다. 남은 두바이 전지훈련 기간 시차 적응 등 현지 적응력을 키우고 조직력을 끌어올려 최상의 컨디션으로 월드컵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국은 U-20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죽음의 C조’에 편성돼 카메룬, 미국, 독일 등 강호들과 험난한 경쟁을 뚫어야 16강에 오를 수 있다. 전체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눠 상위 1, 2위 12개 팀과 3위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U-20 축구대표팀 명단은 다음과 같다.
 <코칭스태프> ▲감독 = 흥명보 ▲코치 = 김태영 서정원 신의손 ▲피지컬트레이너 = 이케다 세이고 <선수(21명)> ▲골키퍼 =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김다솔(연세대) ▲수비수 = 김민우(연세대) 장석원(단국대) 김영권(전주대) 흥정호(조선대) 임종은(울산) 윤석영(전남) 정동호(호코하마) 오재석(경희대) ▲미드필더 = 구자철(제주) 서용덕(오마이) 최성근(연남고) 문기환(서울) ▲공격수 = 서정진(전북) 이승렬(서울) 조영철(니가타) 김동섭(도쿠시마 보르티스) 박희성(고려대) 김보경(흥익대)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매서운 눈빛...강스매싱

10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KRA컵 탁구 슈퍼리그 2009' 남자부 상무-농심다수전에서 농심 고준형이 상무 조연래를 향해 강력한 스매싱을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대서 ‘댄스 스포츠’ 최고수 가린다

12일 ‘빛고을배 댄스스포츠’ 개막

제5회 빛고을배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경기대회가 12일 광주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주최, 광주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10개조 5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종별로는 아마추어 50개조(100명)·학생부 110개조(230명)·일반부 40개조(60명)·장년부 30개조(60명)·동호인 20개조(50명)·단체 7개팀이 참가한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24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충남에선 80명씩, 그리고 전남·서울 경기에선 40명씩 출전한다. 이밖에 대구(30명)·부산·대전(24명



씩)·인천·경남(12명씩)·경북(8명)·충북(6명) 등 전국 각지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고영우 광주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지역 댄스스포츠 꿈나무의 조기 발굴에 도움이 되고 광주시 홍보에도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라이언스 355-B1지구

장애인체육 발전 앞장

국제라이언스협회 355-B1지구(총재 박길무·이하 355-B1지구)가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에 앞장 섰다.

355-B1지구는 지난 9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박광태 시장(광주장애인체육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과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355-B1지구는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와 어울림체육대회 등 전국대회 후원과 경기단체 등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장애인체육회와 355-B1지구는 지난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체육분야 상호협력과 우의를 다져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리그 전남·상무 홈에서 승점 챙긴다

주말 대구·수원과 결전...6위 지키기 총력전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의 순위싸움에 불이 붙었다.

2009 K-리그 전반기 돌풍의 주역이었던 상무와 후반기 다크호스 전남은 나란히 5.6위를 달리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골득실차에서 상무가 앞서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양팀은 똑같이 승점 30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주 양팀의 승패에 따라 순위도 뒤바뀔 수 있다.

순위 뒤집기에 나서는 전남은 ‘골 넣는 수비수’ 광태휘를 내세워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경남에 1-4로 패하며 6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한 전남은 12일 오후 7시 광양전

용구장에서 대구와 K-리그 23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상무가 지난주 경기를 쉬면서 순위 상승의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전남은 경남의 골 세례에 무너져 승점없이 6위를 지켰다. 거기에 2연승을 기록한 7위 상남이 1점차로 바짝 추격해오면서 6위 자리에 위협받고 있다.

전남은 부상에서 탈출한 광태휘로 분위기 상승에 도전한다. 무릎부상으로 자리를 떠났던 ‘허정무호의 황태자’ 광태휘는 지난주 경남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하며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선

보인 광태휘는 그동안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상무는 전남의 승패를 확인한 뒤 13일 오후 3시 영광스포티움을 찾아 수원과 맞대결을 갖는다. 상무는 여전히 최소실점 2위(21실점)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7경기에서 12실점을 기록하며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최성국, 김명중의 골 침묵도 길어지면서 공·수에서 진퇴양난이다.

하지만 상무는 지난주 강원과의 원정경기에서 2-2로 비기며 6연패 이후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공격의 핵심 최성국·김명중 콤비의 부진 속에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한 최재수도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승점이 절실한 전남과 상무의 순위싸움이 축구 팬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시설 전문가 되려면 오세요”

호남대 전국 첫 과정 개설 18일까지 30명 모집

호남대가 지역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스포츠시설 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

10일 호남대 체육과학부에 따르면 “지역스포츠 시설의 낙후·전문가 부재·운영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스포츠 시설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고자 스포츠시설 전문가과정을 전국 최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대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30명에 한해 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오는 21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씩 호남대 광산캠퍼스 체육교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수는 시·군·구 체육시설 담당자 및 관리자, 스포츠 시설업 종사자, 체육단체 실무자와 스포츠 산업 및 체육 관련학과 대학(원)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수생들에게는 1인당 교육비 130만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료증 발급과 스포츠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호남대 체육과학부 조규정 교수는 “지금까지 체육인들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적 요인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기업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체육인이 직접 스포츠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스포츠산업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번 연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우리고장! 우리치킨

다량치킨피자

다량치킨피자

선배형 매장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주)다량치킨피자 대표이사 김민우

다량치킨피자 대표이사 김민우

다량치킨피자 대표이사 김민우

다량치킨피자 대표이사 김민우

010-9900-1111

다량치킨피자...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franchise.)